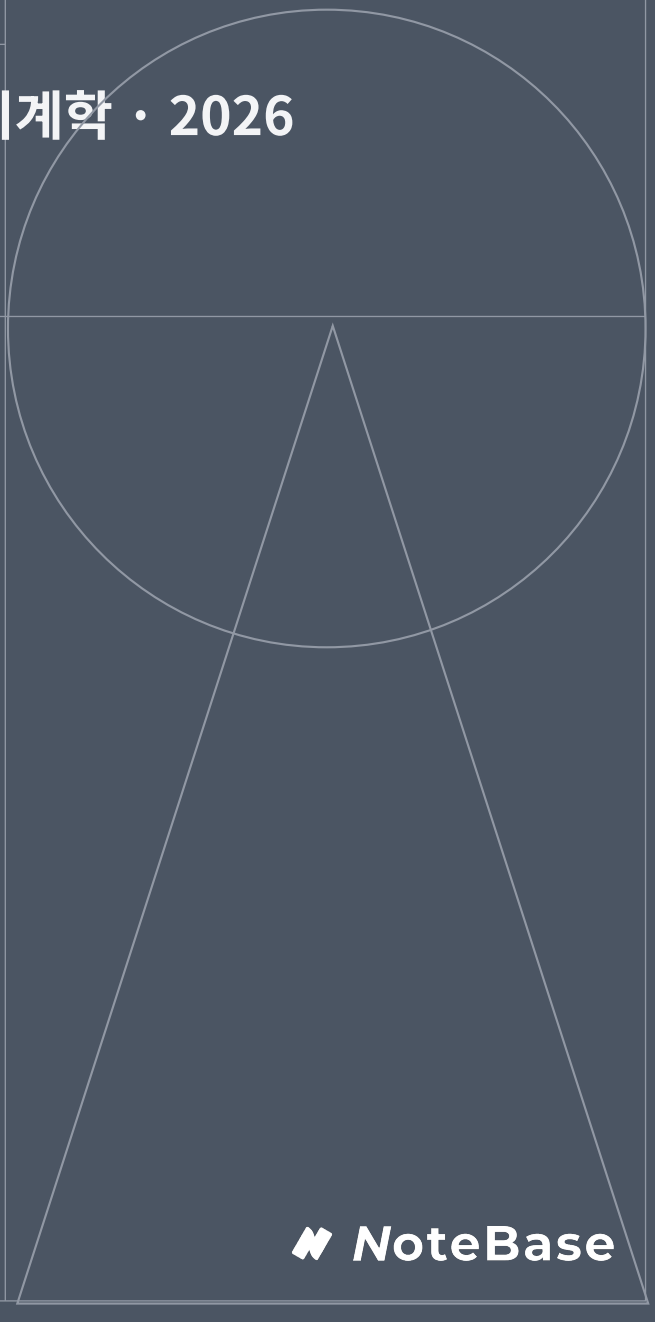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6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6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②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는다.

③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는 포함하되,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의 대가뿐 아니라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도 포함**한다. 공정가치와 거래원가 처리 방식을 혼동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창출 당시의 투입금액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산을 얻기 위해 지급한 대가에 **그때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취득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하는 현행원가와 구별된다.

② (O)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정상거래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의 가격이다. 자산의 취득 거래원가를 더하거나 부채의 발생·인수 거래원가를 빼서 공정가치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거래원가를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할지와 공정가치라는 측정값의 범위는 별개이다.

③ (O)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 관점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인수 때 이미 발생한 거래원가는 앞으로의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향후 자산의 최종 처분이나 부채 이행에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해당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반영한다.

④ (X)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입금액이다. 따라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거래원가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는 모두 자산의 거래원가를 포함하되 기준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NoteBase

문 2. ㈜한국이 20×1년 중 ㈜대한과의 계약 등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이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1월 1일: 20×2년 1월 말까지 상품 70개를 개당 ₩50에 판매하기로 계약 체결
11월 15일: 상품 50개에 대한 통제를 ㈜대한에 이전
11월 30일: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20×2년 1월 말까지 상품 30개를 개당 ₩40에 추가 판매하기로 계약을 변경 (단, 추가된 상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가격 ₩40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함)
12월 15일: 기존 계약 중 이전하지 않은 20개와 추가 계약 중 10개에 대한 통제를 ㈜대한에 이전

① ₩3,760
② ₩3,820
③ ₩3,900
④ ₩4,7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계약 변경 전 수익 2,500원은 유지한다. 변경 후 잔여 상품에는 **통합 단가 44원**을 적용하므로 당기 총수익은 **3,82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1월 15일에 통제를 이전한 50개는 계약 변경 전의 단가 50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때 인식한 수익은 50×50=2,500원이며, 이후 계약 변경 때문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소급하여 바꾸지 않는다.

11월 30일 추가된 상품은 구별되는 재화이지만 추가 단가 40원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남은 상품은 이미 이전한 상품과 구별되므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잔여 부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변경 시점의 남은 상품은 기존 20개와 추가 30개를 합한 50개이다. 배분할 잔여 대가는 기존 미인식 대가 20×50=1,000원과 추가 대가 30×40=1,200원의 합계 2,200원이다.

따라서 잔여 상품의 단위당 배분액은 $\frac{2,200}{20+30}=44$원이다. 12월 15일에 이전한 30개에는 기존·추가 계약 출처를 구별하지 않고 이 단가를 적용하므로 수익은 30×44=1,320원이다.

20×1년도에 인식할 총수익은 2,500+1,320=3,820원이다. 연말까지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잔여 20개에 대응하는 880원은 당기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계약 대가 4,700원과도 3,820+880=4,700으로 대조된다.

따라서 당기 수익은 3,820원으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한국은 20×1년 10월 초 5개월 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당 원가가 ₩40인 상품 100개를 개당 ₩50에 현금판매하였다. ㈜한국은 20×1년에 반품가능성을 20%로 예측하였다. 동 상품의 판매로 ㈜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① ₩0

② ₩750

③ ₩800

④ ₩1,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반품되지 않을 예상 수량은 80개이다. 따라서 이익은 $80 \times (50 - 40) = 800$원이다. 예상 반품분의 매출과 원가는 모두 제외한다.

계산 과정

① 예상 반품 수량: 판매 수량 $Q = 100$개, 예상 반품률 $r = 20\%$이다. 예상 반품은 $100 \times 0.2 = 20$개이고, 반품되지 않을 예상 수량은 $100 - 20 = 80$개이다. 연말에도 반품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반품 예상분을 반영한다.

② 매출과 환불부채: 현금 수령액은 $100 \times 50 = 5{,}000$원이다. 이 중 예상 환불액 $20 \times 50 = 1{,}000$원은 **환불부채**로 구분한다. 따라서 인식할 매출은 $5{,}000 - 1{,}000 = 4{,}000$원이다.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매출원가: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100 \times 40 = 4{,}000$원이다. 예상 반품 상품의 회수권은 $20 \times 40 = 800$원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4{,}000 - 800 = 3{,}200$원이다. 문제에 회수비용이나 반환 상품의 가치 감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차감하지 않는다.

④ 이익과 검산: 이 판매로 인한 이익은 $4{,}000 - 3{,}200 = 800$원이다. 반품되지 않을 예상 수량에 단위당 이익을 곱해도 $80 \times (50 - 40) = 800$원으로 같다. 5개월은 반품 허용기간이지 수익을 매월 균등 인식할 서비스 기간이 아니므로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할 당기이익은 ③ ₩800이다.

NoteBase

문 4. ㈜한국은 20×1년 7월 초 장부금액 ₩100,000의 매출채권을 공정가치인 ₩80,000에 양도하였다. ㈜한국은 매출채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받은 동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한편 ㈜한국은 3개월간 동 매출채권에 손상이 발생하면 최대 ₩20,000까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고, 동 보증의 대가로 ₩5,000을 별도로 수취하였다. ㈜한국이 동 매출채권 양도 시 인식할 (A)매출채권처분손실과 (B)지속적관여자산은?

① (A): ₩15,000, (B): ₩20,000

② (A): ₩15,000, (B): ₩25,000

③ (A): ₩20,000, (B): ₩20,000

④ (A): ₩20,000, (B): ₩2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지속적관여자산은 최대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 **20,000원**이다. 보증 대가는 관련 부채에 반영되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도 **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통제의 이전 여부를 추가로 판단한다. 양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실질적 능력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통제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보증에 따른 지속적 관여 범위에서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보증 형태의 지속적관여자산은 원래 자산 장부금액과 최대 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따라서 (B)는 $\min(100,000, 20,000) = 20,000$원이다. 보증 대가 5,000원을 이 자산에 더하지 않는다.

관련 부채는 최대 보증금액 20,000원에 보증의 최초 공정가치인 수취 대가 5,000원을 더한 25,000원이다. 보증 대가는 즉시 매출채권 처분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의무의 측정에 반영한다.

총 현금 수취액은 양도 대가 80,000원과 보증 대가 5,000원의 합계 85,000원이다. 거래 후 인식할 순액은 현금 85,000+지속적관여자산 20,000−관련 부채 25,000=80,000원이므로 기존 장부금액 100,000원과의 차이 20,000원이 처분손실이다.

분개로 검산하면 차변 현금 85,000원, 지속적관여자산 2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20,000원과 대변 매출채권 100,000원, 관련 부채 25,000원이 각각 125,000원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A) 매출채권처분손실 20,000원, (B) 지속적관여자산 20,000원인 ③이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 ₩80,000(매출채권 ₩100,000, 손실충당금 ₩2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외상매출액은 ₩200,000, 매출채권 회수액은 ₩150,000이며, 손상이 확정된 금액은 ₩1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이 ₩120,000일 경우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채권손상차손은?

① ₩0

② ₩10,000

③ ₩20,000

④ ₩3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말 매출채권 총액 140,000원과 순장부금액 120,000원의 차이인 20,000원이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이다. 손상 확정액을 차감한 기존 충당금은 10,000원이므로 **추가로 설정할 손상차손은 10,000원**이다.

계산 과정

기말 매출채권 총액: 기초 총액 100,000원에 외상매출액을 더하고 회수액과 손상 확정으로 제거한 금액을 뺀다. 따라서 100,000 + 200,000 − 150,000 − 10,000 = 140,000원이다.

기말 손실충당금: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은 매출채권 총액에서 손실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은 140,000 − 120,000 = 20,000원이다.

당기 손상차손: 손상이 확정된 10,000원은 **기존 손실충당금을 사용하여 채권을 제거**하므로, 조정 전 충당금 잔액은 20,000 − 10,000 = 10,000원이다. 기말 필요액 20,000원을 맞추기 위한 추가 설정액은 20,000 − 10,000 = 10,000원이며, 이것이 당기 매출채권손상차손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손상차손은 10,000원으로,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 전환원가에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은 포함하지만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③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에는 직접노무원가뿐 아니라 **고정제조간접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이 모두 포함**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환원가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다. 직접노무원가와 함께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체계적으로 배부한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액도 포함**해야 한다.

② O: 매입원가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한 원가를 반영한다. 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은 실질적인 매입대가를 줄이므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③ O: 일반적인 보관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생산활동이 아니므로 보관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이다. 다만 **다음 생산단계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보관**은 생산과정의 일부이므로 해당 원가를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④ O: 후불조건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면 정상 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지급액의 차이를 금융원가로 구분한다. 이 금융요소는 재고자산 원가에 일괄 가산하지 않고 **금융이 제공되는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7. 2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한 ㈜한국의 20×1년도 상품 매입액은 ₩30,000(수량 100개, 단가 ₩300)이다. 20×1년 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년 말 상품 중 20개는 거래처에 개당 ₩250에 판매하는 확정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확정판매계약에는 판매 관련 부대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	수량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상품	60개	₩200

① ₩7,000

② ₩12,000

③ ₩17,000

④ ₩18,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고는 계약분 20 × 250원과 나머지 40 × 200원을 합한 13,000원이다. 평가손실을 포함한 매출원가는 30,000 − 13,000 = 17,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① 평가 전 매출원가: 기초에 영업을 시작하여 기초재고는 없고, 매입은 100개·30,000원이다. 표의 기말재고는 60개이므로 판매 수량은 $100 - 60 = 40$개이다. 단위원가가 300원이므로 평가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는 $40 \times 300 = 12{,}000$원이다.

② 계약 물량의 평가: 기말 60개 중 **확정판매계약이 있는 20개는 계약가격**을 순실현가능가치 판단에 사용한다. 별도 판매 부대원가가 없으므로 단위당 250원이다. 원가 300원보다 낮아 계약분 재고액은 $20 \times 250 = 5{,}000$원, 평가손실은 $20 \times (300 - 250) = 1{,}000$원이다.

③ 나머지 물량의 평가: 계약이 없는 수량은 $60 - 20 = 40$개이다. 표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00원이 원가 300원보다 낮으므로 재고액은 $40 \times 200 = 8{,}000$원, 평가손실은 $40 \times (300 - 200) = 4{,}000$원이다.

④ 매출원가와 검산: 총 평가손실은 $1{,}000 + 4{,}000 = 5{,}000$원이다.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므로 $12{,}000 + 5{,}000 = 17{,}000$원이다. 평가 후 기말재고 $5{,}000 + 8{,}000 = 13{,}000$원을 매입액에서 빼도 $30{,}000 - 13{,}000 = 17{,}000$원으로 같다. 이 방법에서는 평가손실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할 매출원가는 ③ ₩17,000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기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 ₩100,000을 지출하였으며, 동 지출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동 지출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년 연장되고, 잔존가치는 ₩50,000이 증가되었다. (주)한국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① ₩125,000

② ₩130,000

③ ₩137,500

④ ₩1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성능향상 후 장부금액 550,000원에서 새 잔존가치 50,000원을 뺀다. 이를 **변경 후 잔여 내용연수 4년**에 배분한 감가상각비는 **125,000원**이다.

계산 과정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600,000원을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150,000원이다. 따라서 20×2년 초 성능향상 지출 전 장부금액은 600,000−150,000=450,000원이다.

성능향상 지출 100,000원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용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변경 후 장부금액은 450,000+100,000=550,000원이다.

당초 내용연수 4년 중 이미 1년이 경과했으므로 변경 직전 잔여 내용연수는 3년이다. 여기에 1년 연장을 반영한 새 잔여 내용연수는 4년이며, 새 잔존가치는 0+50,000=50,000원이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경은 앞으로의 감가상각에 반영한다.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frac{550,000-50,000}{3+1}=125,000$원이다. 기존 취득원가에서 다시 출발하거나 총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125,000원으로 ①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건물(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을 취득하였다. 연도별 건물의 공정가치와 20×2년 말 건물에 손상징후가 있어 추정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동 건물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90,000	₩50,000
회수가능액	-	30,000

① ₩15,000

② ₩20,000

③ ₩25,000

④ ₩3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2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후 재평가잉여금은 5,000원 남는다. 회수가능액까지 낮추는 손상차손 20,000원 중 이 잉여금을 먼저 차감하므로 **당기비용은 1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년 말: 취득원가 100,000원에서 첫해 감가상각비 $\frac{100,000}{4}$ = 25,000원을 차감하면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75,000원이다. 표의 공정가치 90,000원으로 재평가하므로 재평가잉여금은 90,000 − 75,000 = 15,000원이다.

20×2년 감가상각: 재평가된 장부금액 9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frac{90,000}{3}$ = 30,000원이다. 따라서 연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90,000 − 30,000 = 60,000원이다.

20×2년 말 재평가: 표의 공정가치 50,000원까지 장부금액을 10,000원 낮춘다. 이 감소액은 해당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 15,000원에서 차감하므로 잉여금 잔액은 5,000원이다. 문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감가상각에 따른 잉여금 대체는 없다.

손상차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뒤의 장부금액 50,000원과 회수가능액 30,000원의 차이는 20,000원이다. 처분부대원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정가치 자체가 회수가능액이라고 보아 손상을 생략할 수 없다. 손상차손 중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5,000원은 먼저 차감**하고 초과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 − 5,000 = **15,000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초 정부로부터 기계장치 취득 자금 ₩20,000을 지원받아 동일자에 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2년 초 (주)한국이 동 기계장치를 ₩50,000에 처분하였다면 (주)한국이 기계장치 처분 시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① 처분손실 ₩10,000

② 처분손실 ₩5,000

③ 처분이익 ₩5,000

④ 처분이익 ₩1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을 뺀 6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1년 후 장부금액은 45,000원이므로 50,000원에 처분하면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상각대상 금액: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에 원가차감법을 적용하므로 기계장치의 최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80,000 − 보조금 20,000 = 60,000원이다.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이 금액 전부가 상각대상이다.

1년 감가상각: 정액법에서는 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60{,}000-0}{4}=15{,}000$원이다. 20×1년 초 취득하여 20×2년 초 처분하므로 1년분을 상각한다.

처분 시 장부금액과 손익: 장부금액은 60,000 − 15,000 = 45,000원이다. 처분대가 50,000원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이익은 50,000 − 45,000 = 5,000원이다. **보조금을 차감한 장부금액**과 처분대가를 비교하며, 이미 차감한 보조금을 처분이익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이익 5,000원으로,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③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된다.

④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한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지만, **내용연수 종료 시 제3자의 구입 약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약정이 있어도 반드시 0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상각방법, 추정의 검토, 잔존가치의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① O: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한다.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특정 기간에 더 많이 소비된다고 임의로 가정하지 않고 정액법을 사용한다.

② O: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예상 내용연수나 효익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 그 변화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③ O: 잔존가치가 장부금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남아 있는 상각대상금액이 없으므로 상각액은 0이다. 이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 잔존가치 증가만으로 음의 상각액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가정하지만 예외가 있다. 내용연수 종료 시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0으로 보지 않는다. 활성시장을 참조해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내용연수 종료 시에도 그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별도의 예외이다.

따라서 제3자의 구입 약정이 있어도 잔존가치를 반드시 0으로 본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12. 투자부동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②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지배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발 없이 처분하기로 한 투자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처분 의사만으로 판매 목적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발 없이 처분하기로 결정해도 **제거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하며 재고자산으로 바꾸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개발을 실제로 시작하는 경우와 단순한 처분 결정은 다르다.

② (O) 부수적인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경비·유지관리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임대 목적의 성격을 유지한다.

③ (O) 지배기업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자가사용부동산**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다만 소유 기업 자체의 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O)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의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에는 **대체일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자가사용부동산을 대체하는 경우의 재평가 방식과 구별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3.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이다.

② 총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을 의미하며,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을 포함한다.

③ 기타포괄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포함한다.

④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총포괄손익에서는 **소유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행한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제외**한다. 출자와 배당은 자본을 변화시키지만 총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주석은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에 표시된 정보에 덧붙여 설명을 제공한다. 표시 항목의 세부 내용이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해 본문 재무제표의 이해를 돕는다.

② X: 총포괄손익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으로 발생한 기간 중 자본 변동 중 **소유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행한 거래로 인한 변동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주의 출자나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총포괄손익이 아니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금액이다.

③ O: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비용 항목이다. 손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손익에는 포함된다.

④ O: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조정이다. 이미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금액이 당기손익에도 반영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총포괄손익에 포함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14. 재무제표 분석기법 중 재무비율을 이용한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활동성 비율에 해당한다.

②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으로 산정한다.

③ 배당수익률은 (총배당액 ÷ 당기순이익) × 100으로 산정한다.

④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으로 산정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분자와 분모를 모두 원가기준으로 맞추어 재고자산의 판매·순환 정도를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다. 활동성 비율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나타내며 재고자산회전율·매출채권회전율 등이 해당한다.

② X: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으로 산정한다. 단기 지급의무인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선지는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다.

③ X: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주가×100으로 산정하며 주식 투자금액에 대한 현금배당의 비율이다. 선지의 총배당액당기순이익×100은 이익 중 배당한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이다.

④ O: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되므로 분자도 매출원가를 사용하여 같은 평가기준으로 비교한다. 평균재고자산은 통상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의 평균이며, 회전율은 한 기간에 재고가 판매되어 순환한 정도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15. ㈜한국은 정부의 토지에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총비용은?

- ㈜한국은 20×1년 초에 유형자산(취득원가 ₩90,000)을 취득·설치하고 즉시 사용을 시작하였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동 유형자산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하며,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은 동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유형자산을 철거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 ㈜한국이 20×1년 초에 추정한 철거 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는 ₩10,000이다. 동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된 할인율은 연 10%로 매년 변동이 없다.

① ₩19,000

② ₩20,000

③ ₩21,000

④ ₩22,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철거의무의 현재가치 10,000원은 **유형자산 원가와 복구충당부채에 함께 포함**한다. 첫해 감가상각비 20,000원과 할인액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 1,000원을 합하면 총비용은 21,000원이다.

계산 과정

최초 인식: 철거의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상 철거비의 현재가치 10,000원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감가상각할 원가는 90,000 + 10,000 = 1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이고 연초부터 사용하므로 1년분을 상각한다. 감가상각비는 $\frac{100{,}000-0}{5}$ = 20,000원이다.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손상비용은 없다.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 시간이 경과하여 철거 시점이 가까워지면 할인된 충당부채 금액이 증가한다. 첫해 증가액은 기초 충당부채 10,000 × 10% = 1,000원이며, 이는 **당기의 이자비용**이다. 최초 복구원가 10,000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총비용은 감가상각비 20,000 + 이자비용 1,000 = 21,000원으로,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20×1년 초 설립된 ㈜한국은 20×3년 3월에 배당가능이익을 고려하여 20×2년도 현금배당금으로 총 ₩1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는데, 이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배당금이다. 20×3년 3월에 지급하는 현금배당금을 위한 ㈜한국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으며, 동 자본금의 구성과 금액 및 배당률은 설립 이후 변동이 없다. ㈜한국의 현금배당금 총 ₩100과 관련하여 (A)우선주가 누적적·비참가적인 경우의 보통주 배분 현금배당금과 (B)우선주가 누적적·완전참가적인 경우의 보통주 배분 현금배당금은?

- 보통주 40주(배당률 1%, 주당 액면금액 ₩100)
- 우선주 10주(배당률 2%, 주당 액면금액 ₩100)

① (A): ₩60, (B): ₩50

② (A): ₩60, (B): ₩56

③ (A): ₩80, (B): ₩50

④ (A): ₩80, (B): ₩5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누적 우선배당은 2개 연도분인 40원이다. 비참가적이면 보통주가 잔액 **60원**을 받고, 완전참가적이면 기본배당 40원에 잔여배당 몫 16원을 더한 **56원**을 받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보통주 자본금은 40주×100원=4,000원, 우선주 자본금은 10주×100원=1,000원이다. 연간 기본 배당액은 보통주 4,000×1%=40원, 우선주 1,000×2%=20원이다.

20×3년 3월에 지급하지만 결의한 것은 20×2년도 배당이다. 설립 이후 첫 배당이므로 누적 우선주는 미지급된 20×1년도 20원과 20×2년도 20원을 합한 40원을 우선 배분받는다. 지급 시점만 보고 20×3년도 배당까지 세 번 누적하지 않는다.

(A)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는 누적 우선배당 40원만 받고 추가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주 배당은 전체 100원에서 이를 뺀 60원이다.

(B)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는 먼저 누적 우선배당 40원을 배분받고, 보통주는 주어진 기본 배당률 1%에 따라 40원을 배분받는다. 남은 배당재원은 100−40−40=20원이다.

완전참가에 따른 잔여 20원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납입자본금 비율 4,000:1,000으로 나눈다. 보통주의 추가 배당은 $20 \times \frac{4,000}{4,000+1,000} = 16$원이므로 보통주 총배당은 40+16=56원이다. 우선주는 40+4=44원으로 합계 100원이 된다.

따라서 보통주 배당은 (A) 60원, (B) 56원이며 ②이다.

NoteBase

문 17. 법인세 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수익은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이다.

③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다.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기를 상세히 예측하여 할인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할인하지 않는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할인하려면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시기를 상세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그 일정의 신뢰성 있는 결정이 실무상 복잡하다. 일부 기업만 할인을 허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오히려 저하되므로 할인하지 않는 일관된 측정을 적용한다.

② O: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중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이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는 그 거래와 같은 범주에 인식하므로 이 손익 금액과 구별한다.

③ O: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결제할 때 미래 과세소득에 더해지는 차이이다. 이 차이와 관련하여 미래에 납부하게 될 법인세 금액이 이연법인세부채이다.

④ O: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 등을 통해 공제효과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회수될 수 있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 말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부분을 감액하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개선되면 그 감액을 환입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한국의 20×1년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는 1,000주이며, 자기주식은 없다.
- 20×1년 4월 1일 무상증자 10%(100주)를 실시하였다.
-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 240주를 취득하였다.
- 20×1년 12월 1일 자기주식 120주를 처분하였다.

① 965주

② 975주

③ 980주

④ 990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는 **연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주식수를 조정**한다. 조정된 1,100주에서 자기주식 보유기간의 영향을 월할로 반영하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990주이다.

계산 과정

무상증자 소급 조정: 무상증자는 자원의 유입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므로, 증자 이전의 주식수에도 10% 증가를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조정된 유통주식수는 1,000 × 1.1 = 1,100주이다. 4월부터만 100주를 가중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반영: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한다. 7월 1일 240주 취득 후 7월부터 11월까지는 1,100 − 240 = 860주이며, 12월 1일 120주 처분 후에는 860 + 120 = 980주이다.

월할 가중평균: 1~6월은 6개월, 7~11월은 5개월, 12월은 1개월이다. 따라서 $1{,}100 \times \frac{6}{12} + 860 \times \frac{5}{12} + 980 \times \frac{1}{12} = 990$주이다. 같은 계산을 $1{,}100 - 240 \times \frac{6}{12} + 120 \times \frac{1}{12} = 990$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990주이며, 선택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한국은 20×1년 초에 ㈜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를 동 일자에 ₩9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일 현재 시장이자율은 연 10%이고, 표시이자율은 연 5%(매년 말 이자지급)이다. 20×1년 말 동 사채의 공정가치가 ₩97,000인 경우, ㈜한국이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단, 손상차손은 없다.)

① ₩1,000

② ₩2,000

③ ₩3,000

④ ₩4,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기말 상각후원가는 94,000원이다. 공정가치 97,000원과의 차이인 **3,000원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이자수익과 수취이자: FVOCI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취득금액 90,000원에 취득시 시장이자율 10%를 적용한 이자수익은 90,000 × 10% = 9,000원이다. 실제 수취이자는 액면금액 100,000원에 표시이자율 5%를 적용하므로 100,000 × 5% = 5,000원이다.

상각후원가: 이자수익 9,000원과 수취이자 5,000원의 차액 4,000원은 할인취득액의 상각으로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20×1년 말 공정가치 평가 전 상각후원가는 90,000 + 9,000 − 5,000 = 94,000원이다.

기타포괄이익: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기말 공정가치 97,000원과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 94,000원**의 차이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될 평가이익이다. 97,000 − 94,000 = **3,0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취득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7,000원 전체를 평가이익으로 처리하면 할인액 상각분을 중복 포함하게 된다.

NoteBase

문 20. ㈜한국은 20×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0인 사채(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를 동 시점의 현재가치인 ₩90,000(시장 이자율 연 10% 적용)에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20×1년 7월 1일에 동 사채를 실제로 발행하였다. 20×1년 초와 20×1년 7월 1일의 시장이자율이 연 10%로 동일한 경우, 20×1년 7월 1일 사채의 발행금액(장부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90,000

② ₩91,500

③ ₩93,000

④ ₩94,5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6개월 유효이자 4,500원에서 표시이자 경과액 3,000원을 뺀 **할인차금 상각액 1,500원**을 연초 금액에 더한다. 사채 장부금액은 **91,500원**이다.

계산 과정

시장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연초에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상각후원가를 7월 1일까지 진행하여 사채 자체의 발행 장부금액을 구한다. 문제는 이자비용을 월할 계산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연초 현재가치 90,000원에 유효이자율 10%와 경과기간 6개월을 적용한 유효이자는
$90,000 \times 10\% \times \frac{6}{12} = 4,500$원이다.

같은 기간의 표시이자 경과액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00,000 \times 6\% \times \frac{6}{12} = 3,000$원이다.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인 1,500원은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7월 1일 사채 장부금액은 90,000+4,500−3,000=91,500원이다. 연초 할인액 10,000원 중 1,500원이 줄어 미상각 할인액이 8,500원이라고 보아도 100,000−8,500=91,500원이다.

연말에 연간 표시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에서 경과이자 3,000원을 발행 시 별도로 수취한다면 총 현금 수취액은 94,500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발행금액(장부금액)은 경과이자를 제외한 사채 자체의 91,500원이며, 두 금액을 혼동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사채의 발행 장부금액은 91,500원으로 ②이다.

NoteBase

문 21. ㈜한국은 20×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0인 신주인수권부사채(표시이자율 연 7%, 매년 말 이자지급,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를 액면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시장 이자율 연 10% 적용)는 ₩90,000이며, 행사금액은 ₩1,000(행사비율 100%, 사채 액면금액 ₩1,000당 주당 액면금액 ₩500인 보통주 1주 인수)이다. 20×2년 초에 사채 액면금액 중 7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20×2년 초에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① ₩35,000

② ₩39,000

③ ₩42,000

④ ₩4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납입금에서 주식 액면금액을 뺀 35,000원에 **행사된 신주인수권대가 7,000원**을 더한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42,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발행 시 자본요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대가 100,000원에서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로 측정한 부채요소 90,000원을 차감하면 신주인수권대가는 10,000원이다. 부채요소의 이후 이자비용과 상각은 이 자본요소를 증액하지 않는다.

행사 주식수와 납입금: 사채 액면금액 중 행사 대상은 100,000 × 70% = 70,000원이다. 사채 액면 1,000원당 1주를 인수하므로 $\frac{70,000}{1,000}$ = 70주를 발행한다. 행사 시 납입금은 70 × 1,000 = 70,000원이고, 자본금 증가액은 70 × 500 = 35,000원이다.

주식발행초과금: 납입금 중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 70,000 − 35,000 = 35,000원에 행사분 신주인수권대가 10,000 × 70% = 7,000원을 대체하여 더한다. 따라서 35,000 + 7,000 = 42,000원이다. 신주인수권 행사이므로 **사채의 장부금액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산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42,000원으로,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2. ㈜한국은 20×2년 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장부 마감 전에 수정을 완료하였다. 동 오류사항의 수정 반영 전 20×2년도 당기순이익이 ₩100,000인 경우, 오류사항을 수정 반영한 ㈜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 20×1년 기말 재고자산은 ₩10,000이 과소계상 되고,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20,000이 과대계상 되었다.
- 20×1년 초 취득한 본사건물 ₩30,000(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손상차손 없음)이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잘못 처리되었다.

① ₩40,000

② ₩60,000

③ ₩80,000

④ ₩1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고 오류로 당기이익이 30,000원 과대계상되었고, 건물의 당기 감가상각비 10,000원도 누락되었다. 합계 4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6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재고 오류가 당기이익에 미친 영향을 구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한다. 전기말 재고 10,000원 과소계상은 당기초 재고에도 이어져 당기 매출원가를 10,000원 과소계상한다. 당기말 재고 20,000원 과대계상 역시 당기 매출원가를 20,000원 과소계상한다. 따라서 **당기이익을 합계 30,000원 줄여야 한다**.

2. 건물의 당기 감가상각비 누락을 수정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30,000 \div 3 = 10,000$원이다. 취득 시 전액 비용처리하여 장부에 건물이 남지 않았으므로 20×2년 감가상각비 10,000원도 누락되었다. 이를 당기 비용에 반영한다. **전기 비용처리 오류의 전기손익 영향은 당기이익에 더하지 않는다**.

3. 수정 전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의 과대계상분을 차감한다.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60,000$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60,000원,** ②이다.

NoteBase

문 23. 다음에 제시된 ㈜한국의 20×1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20×1년도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고객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기초	기말
매출채권(순액)	₩9,000	₩6,000
재고자산	7,000	5,000
매입채무	3,000	2,000
선급급여	1,000	3,000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17,000
매출원가	(10,000)
매출총이익	7,000
급여	(3,000)
매출채권손상차손	(1,000)
영업이익	₩3,000

① ₩16,000

② ₩17,000

③ ₩18,000

④ ₩19,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 순액의 감소 3,000원 중 손상차손 1,000원은 현금유입이 아니다. 매출액 17,000원에 실제 회수에 해당하는 2,000원을 더하면 **고객 현금유입액은 19,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계산 대상: 직접법에서는 발생주의 매출액을 실제 고객 현금수취액으로 조정한다. 표의 매출액은 17,000원이며, 매출채권은 기초 9,000원과 기말 6,000원으로 **손상차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이 제시되어 있다.

매출채권 감소의 구분: 순매출채권 감소액은 9,000 − 6,000 = 3,000원이다. 그러나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채권손상차손 1,000원도 순매출채권을 줄이며 이는 현금회수가 아니다. 따라서 순매출채권 감소액 전부를 매출액에 더하지 말고 **손상차손 1,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현금유입액: 기말 순매출채권은 기초 순매출채권에 매출을 더하고 고객 현금수취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현금수취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9,000 + 17,000 − 1,000 − 6,000 = **19,000원**이며, ④에 해당한다. 재고자산·매입채무는 공급자 지급액, 선급급여는 종업원 지급액과 관련되므로 고객 현금유입액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4.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사원 10명에게 각각 10개씩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 주식선택권에는 10년의 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 영업사원은 가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가 가능하며,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단위당 ₩30이다.
- 부여일 시점에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이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시점에 추정한 영업사원의 퇴사율은 각각 10%와 20%이며, 주식선택권의 가득일까지 퇴사율의 변동은 없다.

① ₩70

② ₩80

③ ₩90

④ ₩1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식결제형 보상은 부여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가득 예상 수량을 조정한다. 20×2년 말 누적 보상비용 160원에서 **전기에 이미 인식한 90원을 차감**하면 당기 보상비용은 70원이다.

계산 과정

측정 기준: 부여한 선택권은 총 10명 × 10개 = 100개이다. 부여일 단위당 공정가치 10원을 기준으로 하며, 10년의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대해 가득기간 동안 비용을 인식한다. 행사가격 30원과 가득 후 행사 가능 기간 2년을 보상비용의 단가나 배분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1년 말 누적 비용: 퇴사율 10%를 적용하면 가득 예상 인원은 10 × 90% = 9명, 예상 선택권은 90개이다. 1년간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누적 비용은 $90 \times 10 \times \frac{1}{10} = 90$원이다.

20×2년 말 누적 비용: 퇴사율 추정치가 20%로 바뀌므로 가득 예상 인원은 8명, 선택권은 80개이다. 2년간의 누적 비용을 수정된 추정치로 계산하면 $80 \times 10 \times \frac{2}{10} = 160$원이다. **추정 변경은 당기 말 누적액에 반영**하며 전기 비용을 소급 수정하지 않는다.

20×2년도 보상비용은 누적 필요액 160 − 전기 인식액 90 = 70원으로, 선택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5. 종업원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이다.

②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③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와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자본 내 대체와 손익 재분류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 또는 해고의 대가를 포괄한다. 퇴직급여에서는 기업의 추가 부담 의무와 확정급여 재측정요소의 표시 위치가 핵심이다.

① O: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뿐 아니라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도 종업원급여에 포함된다. 임금이나 재직 중 보수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② O: 확정기여제도는 별도 기금에 정해진 기여금을 납부하며, 기금에 충분한 자산이 없더라도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제도이다. 기업이 약속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확정급여제도와 구별된다.

③ O: 확정급여제도의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다만 순확정급여자산을 실제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④ X: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재측정요소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6. 다음에 제시된 ㈜한국의 20× 1년 재무상태표 자료와 <당기 중 발생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20× 1년도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기초	기말
단기차입금	₩23,000	₩20,000
자본금	25,000	26,000
자본잉여금	10,000	13,100
자기주식	(1,000)	(700)
이익잉여금	3,000	3,400

<당기 중 발생 거래>
- 단기차입금 ₩3,000을 상환하였다.
- 유상증자(발행금액 총 ₩4,000, 액면금액 총 ₩1,000)를 하였다.
- 취득원가가 ₩300인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 당기순이익은 ₩1,000이며, 현금배당금 지급 외의 이익잉여금 변동은 없다.
-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당기 중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① ₩700

② ₩800

③ ₩900

④ ₩1,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증자 4,000원과 자기주식 처분 400원은 유입이고, 차입금 상환 3,000원과 배당금 600원은 유출이다.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800원 순유입**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차입금 상환은 **3,000원 유출**, 유상증자는 **4,000원 유입**이다. 증자 현금흐름에는 액면금액 1,000원이 아니라 실제 발행금액 4,000원을 사용한다.

2. 자기주식 처분대금을 구한다. 자본잉여금 증가액은 $13,100 - 10,000 = 3,100$원이고,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은 $4,000 - 1,000 = 3,000$원이다. 나머지 1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다. 따라서 처분대금은 **취득원가 300원에 처분이익 100원을 더한 400원 유입**이다. 자기주식 장부금액의 감소 300원만 현금 유입으로 쓰면 안 된다.

3.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현금배당금을 구한다.
3,000+1,000-배당금=3,400
현금배당금은 600원이며, 문제의 분류 조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유출**이다. 당기순이익 1,000원 자체를 재무활동 유입으로 더하지 않는다.

4. 재무활동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다.
$4,000 + 400 - 3,000 - 600 = 8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800원 순유입,** ②이다.

NoteBase

문 27. ㈜한국의 20×1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기초재공품	₩13,000	기말재공품	₩25,000
기초제품	40,000	기말제품	32,000
직접재료원가	320,000	직접노무원가	90,000
제조간접원가	145,000		

① ₩551,000

② ₩559,000

③ ₩567,000

④ ₩57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총제조원가 555,000원에 재공품 증감을 반영하면 당기제품제조원가는 543,000원이다. 여기에 **기초제품을 더하고 기말제품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551,000원이다.

계산 과정

당기총제조원가: 표의 직접재료원가 320,000원, 직접노무원가 90,000원, 제조간접원가 145,000원을 합한다. 따라서 320,000 + 90,000 + 145,000 = 555,000원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 13,000원과 당기총제조원가를 합한 뒤 기말재공품 25,000원을 제외한다. 13,000 + 555,000 − 25,000 = 543,000원이다. **기말재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가**이므로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기초제품 40,000원과 당기제품제조원가 543,000원을 합하면 판매 가능한 제품 원가는 583,000원이다. 이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기말제품 32,000원을 차감하면 40,000 + 543,000 − 32,000 = 551,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551,000원으로, 선택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8.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 1년 예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제조간접원가(예산) ₩250,000
제조간접원가(실제) ₩220,000
직접노무시간(예산) 10,000 시간
직접노무시간(실제) 8,000 시간

① ₩20,000 과소배부
② ₩20,000 과대배부
③ ₩30,000 과소배부
④ ₩30,000 과대배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예정배부율 25원/시간을 실제 직접노무시간 8,000시간에 적용하면 배부액은 200,000원이다. 실제 제조간접원가 220,000원보다 적으므로 **20,000원 과소배부**이다.

계산 과정

예정배부율: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발생액으로 바로 배부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예정배부율로 배부한다. 직접노무시간이 배부기준이므로 예정배부율은 $\frac{250,000}{10,000} = 25$원/시간이다. 분자와 분모에는 각각 예산 제조간접원가와 예산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예정배부율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곱한다. 25원/시간 × 8,000시간 = 200,000원이 해당 기간 작업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이다.

배부차이: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220,000원인데 배부액은 200,000원이므로 220,000 − 200,000 = 20,000원이 덜 배부되었다. 따라서 **20,000원 과소배부**이며 ①에 해당한다. 예산액 250,000원과 실제액 220,000원의 차이 30,000원은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가 아니므로 이 문항의 배부차이가 아니다.

NoteBase

문 29.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의 배분순서가 달라지면 배분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②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의 배분순서와 관계없이 배분 후의 결과는 일정하다.

③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이 간편하다.

④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할 때** 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은 취지가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은 보조부문끼리 제공한 용역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직접배분법은 무시하고, 단계배분법은 순서에 따라 일부 반영하며, 상호배분법은 상호관계를 모두 반영한다.

① O: 단계배분법은 먼저 배분한 보조부문을 닫고 이후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그 부문에 되돌려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분순서에 따라 반영되는 보조부문 간 용역과 최종 배부액이 달라진다. 특수한 수치에서 우연히 결과가 같을 수 있다는 점과 방법의 일반적 순서 의존성을 구별한다.

② O: 직접배분법은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분한다. 다른 보조부문에서 넘어오는 배부액이 없으므로 동일한 배부기준을 사용하는 한 계산 순서와 무관하게 결과가 일정하다.

③ O: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관계를 배부계산에서 제외한다. 연립방정식이나 단계별 부문 폐쇄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지만, 상호용역이 큰 경우 정확성 측면의 한계가 있다.

④ X: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관계를 연립방정식 등으로 모두 반영한다. 그 관계가 중요할수록 적용의 효익이 크며, 중요하지 않다면 단순한 방법으로도 큰 차이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 적용 취지가 반대이다.

따라서 상호용역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상호배분법이 타당하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0. ㈜한국은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이 있으며, 동력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두고 있다. 동력부문에서는 ₩210,000의 원가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고정원가인 발전기의 감가상각비는 ₩150,000이며, 변동원가는 ₩60,000이다. 20×1년에 제조부문이 사용한 전력의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원가는?

구 분	절단부문	조립부문	합 계
실제사용량	400시간	200시간	600시간
최대사용가능량	600시간	400시간	1,000시간

① ₩80,000

② ₩126,000

③ ₩130,000

④ ₩14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에 따라 배부한다. 절단부문 배부액은 각각 90,000원과 40,000원이므로 **합계 130,000원**이다.

계산 과정

배부기준의 구분: 이중배부율법은 보조부문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배부한다. 발전기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원가는 설비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므로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고정원가 배부액: 표에서 절단부문의 최대사용가능량은 600시간이고 전체는 1,000시간이다. 따라서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고정원가는 $150{,}000 \times \frac{600}{1{,}000} = 90{,}000$원이다.

변동원가 배부액: 절단부문의 실제사용량은 400시간이고 전체는 600시간이다. 따라서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변동원가는 $60{,}000 \times \frac{400}{600} = 40{,}000$원이다.

합계: 절단부문 동력부문원가 배부액은 90,000 + 40,000 = **130,0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총원가 210,000원 전부에 실제사용량 비율이나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하나만 적용하면 이중배부율법이 아니다.

NoteBase

문 31.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A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의 발생행태보다 원가를 소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원가를 집계하여 배부한다.

②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품의 생산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수준활동의 원가동인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③ 제품과 생산공정의 다양화로 거액의 간접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전통적 원가계산보다 정확한 제품원가를 제공한다.

④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절차는 활동중심점의 설정, 활동분석, 원가동인의 선택,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먼저 **활동을 분석한 뒤 활동중심점을 설정**한다. 어떤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는지 파악해야 성격이 유사한 활동을 묶고 적절한 원가동인을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품이 활동을 소비하고 활동이 자원을 소비한다는 관계에 따라 원가를 집계한다. 변동비·고정비 같은 원가행태 구분 자체보다는 **어떤 활동이 원가를 발생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활동의 소비량을 제품원가에 반영한다.

② O: 작업준비 횟수, 구매주문 횟수, 제품설계 변경 횟수처럼 생산수량에 직접 비례하지 않는 원가동인도 사용한다. 배치수준·제품수준 등 비단위수준활동의 원가를 모두 생산수량만으로 배부할 때 생기는 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단위수준활동의 원가동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제품과 공정이 다양하고 간접원가 비중이 크면 제품마다 소비하는 활동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이때 단일 조업도 기준보다 여러 활동의 원가동인을 사용하면 자원 소비의 차이를 더 잘 반영하여 제품원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X: 절차의 첫 두 단계를 바꾸었다. 먼저 활동분석으로 수행 활동과 자원 소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중심점 또는 활동별 원가집합을 설정한다. 이어 원가동인을 선택하고 활동별 원가를 원가동인 수량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계산한 뒤, 제품이 소비한 활동량에 따라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따라서 활동분석보다 활동중심점 설정을 앞세운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2. ㈜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완성품원가는? (단, 공손은 없다.)

구 분	수량	완성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500단위	60%	₩6,000	₩1,300
당기착수량	2,000단위		44,000	24,000
당기완성량	2,100단위			
기말재공품	400단위	50%		

① ₩56,800
② ₩64,100
③ ₩65,100
④ ₩66,5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중평균법의 환산량당 재료원가는 20원, 전환원가는 11원이다. 완성품 2,100단위에 합계 31원을 배부하므로 **완성품원가는 65,1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합산**한다. 물량은 기초 500단위와 당기착수 2,000단위의 합계 2,500단위가 완성품 2,100단위와 기말재공품 400단위로 배분되어 일치한다.

2. 직접재료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한다.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도 재료에 대해서는 100% 완성이다.
환산량: $2,100 + 400 = 2,500$단위
환산량당 원가: $(6,000 + 44,000) \div 2,500 = 20$원

3.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한다.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에는 50%를 적용한다.
환산량: $2,100 + 400 \times 50\% = 2,300$단위
환산량당 원가: $(1,300 + 24,000) \div 2,300 = 11$원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 완성도 60%를 이용해 전기 작업량을 차감하지 않는다.

4. 완성품은 재료와 전환원가 모두 100% 완성되었으므로 두 단위원가를 합하여 배부한다.
$2,100 \times (20 + 11) = 65,100$원
따라서 완성품원가는 **65,100원,** ③이다. 검산하면 기말재공품원가 $400 \times 20 + 200 \times 11 = 10,200$원을 더한 총 75,300원이 전체 투입원가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3. ㈜한국은 동일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결합제품 A는 1,000단위, B는 500단위를 생산하였으며,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각각 ₩300과 ₩400이다. 결합제품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150,000일 경우, 결합원가의 총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① ₩200,000

② ₩250,000

③ ₩270,000

④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의 분리점 총판매가치는 300,000원으로 전체 500,000원의 **60%**이다. A에 배분된 150,000원을 60%로 나누면 총결합원가는 **250,000원**이다.

계산 과정

분리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각 제품의 생산량에 분리점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한 총판매가치를 배부기준으로 사용한다. 단위당 가격만 비교하거나 물량 비율만 사용하지 않는다.

A의 분리점 판매가치는 1,000×300=300,000원, B의 판매가치는 500×400=200,000원이다. 합계는 500,000원이므로 A의 배분비율은 $\frac{300,000}{500,000} = 0.6$이다.

총결합원가를 C라고 하면 A 배분액은 $0.6C = 150,000$원이다. 따라서 $C = \frac{150,000}{0.6} = 250,000$원으로 역산한다.

B에는 나머지 40%인 100,000원이 배분되므로 A 150,000원과 합계 250,000원으로 일치한다. 판매가치 500,000원 자체가 결합원가는 아니며, 이는 원가를 나눌 비율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총결합원가는 250,000원이며 ②이다.

NoteBase

문 34. ㈜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직접재료의 kg당 실제구입가격은?

실제 제품생산량	1,500 단위
직접재료 제품 단위당 수량표준	2 kg
직접재료 제품 단위당 가격표준	₩20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55,000
직접재료원가 수량(능률)차이	₩10,000 (유리)

① ₩21

② ₩22

③ ₩23

④ ₩24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수량차이 10,000원이 유리하므로 실제 사용량은 표준허용량 3,000kg보다 500kg 적은 2,500kg이다.
실제원가를 **실제 사용량 2,500kg으로 나누면** kg당 실제가격은 22원이다.

계산 과정

표준허용수량: 실제 생산량은 1,500단위이고 제품 1단위의 재료 수량표준은 2kg이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수량은 1,500 × 2 = 3,000kg이다. 재료가격 표준은 kg당 20원으로 적용한다.

실제수량 역산: 수량차이는 실제수량과 표준허용수량의 차이에 표준가격을 곱하여 측정한다. 유리차이 10,000원은 **실제수량이 표준허용수량보다 적다**는 뜻이다. 절약한 수량은 $\frac{10,000}{20}$ = 500kg이므로 실제수량은 3,000 − 500 = 2,500kg이다.

실제가격: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55,000원은 실제수량에 실제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kg당 실제구입가격은 $\frac{55,000}{2,500}$ = 22원이다. 표준허용수량 3,000kg을 분모로 쓰면 실제가격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kg당 실제구입가격은 22원이며,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5. ㈜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05,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생산량	2,000 단위
판매량	1,700 단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2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
고정판매관리비	₩50,000

① ₩82,500

② ₩90,000

③ ₩120,000

④ ₩127,5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고 300단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원이 당기비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보다 15,000원 큰 **1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익 차이의 원인: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전부원가계산은 제품원가에 포함하여 판매된 제품의 몫만 매출원가로 비용화한다. 따라서 기말재고에 남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커진다**. 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므로 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기말재고와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기초재고는 없다. 생산량 2,000단위에서 판매량 1,700단위를 차감한 기말재고는 300단위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100,000}{2,000} = 50$원/단위이다.

비용의 이연액: 전부원가계산의 기말재고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단위 × 50원/단위 = 15,000원이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이미 비용 처리한 이 금액이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자산으로 남는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105,000원에 비용 이연액 15,000원을 더한다. 105,000 + 15,000 = **120,0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6. ㈜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이고, 공헌이익률은 20%이며, 총고정원가는 ₩300,000이다. 법인세율이 40%인 경우, 세후목표이익 ₩6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단,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한다.)

① 1,500단위

② 1,800단위

③ 2,000단위

④ 2,250단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세후목표이익 60,000원을 달성하려면 **세전이익 100,000원**이 필요하다. 고정원가와 이를 합한 400,000원을 단위당 공헌이익 200원으로 나누면 판매량은 2,000단위이다.

계산 과정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며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 창출에 사용된다. 공헌이익률이 2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 × 20% = 200원이다.

세전목표이익 환산: 세후이익은 세전이익에 세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필요한 세전이익은 $\frac{60,000}{1-0.4} = 100,000$원이다. 세후목표이익을 그대로 고정원가에 더하면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

목표판매량: 총공헌이익은 고정원가 300,000원과 세전목표이익 1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이어야 한다. 판매량을 Q라 하면 $200Q - 300,000 = 100,000$이며, $Q = \frac{300,000 + 100,000}{200} = 2,000$단위이다. 이때 세후이익은 (400,000 − 300,000) × 60% = 60,000원으로 목표와 같다.

따라서 필요한 판매량은 2,000단위이며,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7. ㈜한국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1,000단위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며, 20×1년 부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외부업체로부터 부품 1,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11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국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계장치 임차료 ₩10,000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유휴설비는 임대해서 ₩15,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이 외부업체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20×1년의 증분이익은?

	단위당 원가	총원가
변동제조원가	₩90	₩9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40	40,000
합계	₩130	₩130,000

① ₩5,000

② ₩10,000

③ ₩15,000

④ ₩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외부구입으로 변동원가 90,000원과 임차료 10,000원을 절감하고 임대수익 15,000원을 얻는다. 구입액 110,000원을 차감하면 **이익이 5,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자가제조와 외부구입 의사결정에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원가와 추가 수익만 비교한다. 표의 총제조원가 130,000원을 모두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외부구입으로 절감되는 변동제조원가는 단위당 90원×1,000단위=90,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원 중 절감 가능하다고 제시된 기계장치 임차료 10,000원도 회피가능원가이다. 나머지 고정원가 30,000원은 계속 발생하므로 증분 비교에서 제외한다.

외부구입 대금은 단위당 110원×1,000단위=110,000원이다. 외부구입으로 확보된 유휴설비를 임대하면 추가 수익 15,000원을 얻으므로 이 수익도 수락안의 효익에 포함한다.

증분이익은 회피 원가 90,000+10,000에 추가 임대수익 15,000을 더하고 외부구입액 110,000을 차감한 5,000원이다. 즉, 90,000+10,000+15,000−110,000=5,000원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순원가로 대조하면 자가제조는 130,000원, 외부구입은 구입액 110,000+계속 발생하는 고정원가 30,000−임대수익 15,000=125,000원이다. 차이는 역시 5,000원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외부업체 제안을 수락하면 증분이익은 5,000원이며 ①이다.

NoteBase

문 38. ㈜한국의 20×1년 1분기와 2분기의 목표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3kg이 투입되며, 원재료의 구입가격은 kg당 ₩20이다. 각 분기말 원재료 재고량은 다음 분기 목표생산량에 필요한 원재료량의 20%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원재료 구입예산은?

	1분기	2분기
목표생산량	1,500단위	2,000단위

① ₩90,000

② ₩96,000

③ ₩106,000

④ ₩114,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재료 구입량은 생산소요량에 기말 목표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차감하여 구한다. 4,500 + 1,200 − 900 = 4,800kg을 구입하므로 **구입예산은 96,000원**이다.

계산 과정

1분기 생산소요량: 표의 1분기 목표생산량은 1,500단위이며 제품 1단위당 원재료 3kg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는 1,500 × 3 = 4,500kg이다.

기말 목표재고량: 1분기 말에는 다음 분기인 2분기 생산소요량의 20%를 보유해야 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 2,000단위에 필요한 원재료는 2,000 × 3 = 6,000kg이므로, 1분기 말 목표재고는 6,000 × 20% = 1,200kg이다.

기초재고량: 각 분기 말 재고정책은 전기 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1분기 기초재고는 **1분기 생산소요량의 20%**인 4,500 × 20% = 900kg이다. 기초재고가 이미 있으므로 이번 분기에 새로 구입할 양에서 차감한다.

구입예산: 원재료 구입량은 생산소요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이므로 4,500 + 1,200 − 900 = 4,800kg이다. 여기에 kg당 구입가격 20원을 곱하면 4,800 × 20 = **96,000원**으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그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③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④ 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4번

①

수익의 원천별 구분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이고, 성질별 구분은 **국세수익·이전수익·국가운영수익**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②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재화·용역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는 자원 유출·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NoteBase

③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④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청구권의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교환수익**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1. 신고 · 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 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2014.2.27>

NoteBase

문 4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현금흐름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운영활동,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금의 융자와 회수 활동은 투자활동에 속한다.

④ 국채의 발행과 상환 활동은 재무활동에 속한다.

정답 2번

①

현금흐름을 **운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순현금흐름을 기초 현금에 합산하여 기말 현금을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 ·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운영활동의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법은 현금유입을 원천별로, 현금유출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와 이를 돌려받는 회수는 **투자활동**에 포함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 ·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NoteBase

④

국채의 발행과 상환은 부채에 영향을 주는 자금 조달·상환 활동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NoteBase